

# '10년 애물단지' 옥암지구 대학부지 개발한다

### 연구·의료·학교·편의시설 4개 부지로 분할 내년 착공

목포시가 옥암 지구내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이자 10년 넘게 애물단지로 남아있던 대학부지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목포시는 "최근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옥암 대학부지 용도변경과 함께 내년부터 기반 시설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4일 밝혔다.

목포시 도시개발 사업단은 대학부지 개발을 위해 지난 8월 전남도에 대학부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으며,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 후 재신청 보완요구가 있어 목포시의회 의견청취와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난 달 전남도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목포시는 전남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후 내년 1월 정식으로 국토부에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전남도와 국토부의 승인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옥암동 1383번지 일원 19만693㎡(6만여평)에 조성된 대학부지를 교육연구 시설용지, 교육·의료 복합용지, 고등학교부지, 편의시설 용지 등 크게 4개로 분할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성 비율로는 교육연구시설이 33.5%



목포 옥암지구 내 마지막 '금싸라기 땅'인 대학부지가 10년이 넘도록 황무지로 방치되고 있다.

로 가장 많고 편의시설 용지 12.3%와 교육·의료 복합용지 10.7%, 고등학교부지는 10.4%다.

개발계획이 예정대로 승인되면 자연녹지에서 주거 및 준주거지역으로, 건폐율은 현재 20%에서 50%로, 용적률은 100%에서 400%로 높아진다.

앞서 지난 2015년 1월에 실시된 입지수요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87.3%가 '개발 필요성'에 찬성했으며 필요시설로는 문화시설(34.7%), 편의시설(20.1%), 교육시설

(18.1%) 등을 꼽았다.

특히 목포시는 내년 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거쳐 3월부터 8월까지 지반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 뒤 8월부터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기반시설 공사는 총연장 3570m 폭 6~20m에 달하는 도로 23개 노선과 2곳에 교량(82m)이 건설된다. 또 상수도로는 길이 3.3km에 35~100mm의 관이 매설되고 하수도는 7.2km(150~1200mm관)에 걸쳐 설치

된다. 이에 따른 예상 사업비는 실시설계비 6억원, 공사비 132억원 등 총 138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옥암지구 대학부지 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 교육·의료 연구시설 유지와 전문 특화거리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kwangju.co.kr

# 남약쇼핑몰 사용승인 반발 확산

### 목포시, 오늘까지 관로 미철거면 행정대집행 범시민대책위, 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 나서

무안 남약복합쇼핑몰(롯데쇼핑)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해 목포시가 5일까지 연결된 우수관로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 대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4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하수도법에 따라 연결된 우수관로에 대해 5일까지 철거할 것을 촉구하고, 조치 상태에 따라 행정 대집행에 나서겠다는 공문을 무안군과 건축주(국민은행)에 발송했다.

목포시는 또 지난 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주)롯데쇼핑을 상대로 하수배출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는 (주)롯데쇼핑에 남약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완료되는 때까지 남약복합쇼핑몰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남약하수처리장으로 배출해서는 안되며, (주)롯데쇼핑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중단할 때까지 1일당 100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신청했다.

앞서 무안군은 지난달 9일 복합쇼핑몰에 대한 대규모 점포 등록을 수리한 데 이어 지난달 25일 '하수처리해 목포시와 협의 처리하라'는 조건부 건축물 사용승인을 허가했다.

이 같은 무안군의 결정에 대해 목포시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 남약 복합쇼핑몰 입점지 범시민대책위원회도 주민 서명을 받아 무안군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범시민대책위는 이를 통해 무안군의 행정과정 중 불법적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방침이다. 범시민대책위는 각 상인회 별로 주민 서명을 받아 이번 주중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kwangju.co.kr

# 목포시청 동아리 '발머사' 관광목포발전 논문집 발간

목포시청 내 최초이자 최장수 연구동아리인 '발머사(발길 따라 머무는 사람들)'가 관광목포 발전을 위한 연구 논문집을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목포시 공무원 24명으로 구성된 동아리 발머사는 지난 2006년 구성된 이후 ▲원도심 근대 문화유적 및 숨은 관광자원 발굴, ▲숨겨진 문화유산 발굴을 위한 지표조사, ▲지역 내 유·무형 문화자원 연계를 통한 관광자원화 등의 분야에서 10년째 꾸준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발머사는 최근 지난 10년 동안 펼쳐온 이 같은 연구 활동들을 모아 10주년 기념 논문집을 발간했다.

총 540쪽에 이르는 방대한 이 논문집에는 ▲지역 교육 문화콘텐츠의 관광브랜드화 ▲목포 원도심 르네상스 21 ▲게스트하우스의 문화관광 상품화 방안 ▲맛과 맛을 버무리는 숨은 맛집 관광 브랜드화 ▲목포 원도심 근대역사 재현 관광활성화 ▲목포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등 총 9편의 연구 논문이 담겼다.



특히 이 가운데 '목포 원도심 르네상스 21' 논문은 전남도 주관 행정연수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노기창 발머사 회장은 "동아리가 제안한 논문이 목포시 관광정책에 반영돼 시행중에 있는 것들도 있다"면서 "이번 논문집이 목포 관광의 현재를 되돌아보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논문집 출판기념식에서 공직자의 책임을 다하면서 틈틈이 연구해 목포의 문화를 재발견하고 대안을 제시한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목포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받는다

### 처우개선 등 조례 제정

앞으로 목포시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이 활동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목포시의회 김귀선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목포시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해 매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 시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 교육을 실시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해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내용은 교통비와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해설 직무 시 착용하는 근무복 구입비,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직무 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 등이다.

목포=김영희기자 lyc@kwangju.co.kr

후로 하고 1일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하며 다만, 겨울철에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그동안 전남도에서만 위·해축이 가능했던 것을 직무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 해축을 건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목포시의회 김귀선 의원은 "해설사는 목포시의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전문직이나 소양도 중요하지만 애환심이 더 중요하다"며 "목포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적절한 교육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목포를 만들고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취지"라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목포시에서는 24명의 문화관광해설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 이난영 탄생 100주년 기념비 제막 갯바위 목포개항 100주년 기념탑 광장에

'목포의 눈물' 이난영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최근 갯바위 목포개항 100주년 기념탑 광장에 제막됐다. <사진> 기념비에는 목포의 눈물을 탄생시킨 이난영 여사를 기리고 예술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의 문화를 희망의 문화로 일깨워가자는 의지가 담겨있다.

목포시인애옹이 시민과 예술인의 성금 1500만원을 모아 건립한 이난영 탄생 100주년 기념비는 가로 3m20cm 높이 2m20cm의 화강암 재질로 '일제 강점기 민족의 한을 달래준 노래'로 시작하는 고석구 목포대 전 총장이 지은 비문이

새겨져 있다. 비문 글씨는 강수남 서예가, 비문 조각은 손상식 조각가가 참여했다.

임철호 목포시인애옹 회장은 "목포의 눈물은 목포를 대변하는 함축적인 이미지와 위상을 갖고 있고 이 노래를 통해 응축된 한을 풀고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의지를 심어주는 구심체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번 기념비 건립을 통해 목포인이 하나 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양산지구를 빛낼 39층 초고층 랜드마크 프리미엄!**

**모델하우스 성황리 공개중!**  
1%를 위한 명품! 안전설계! 혁신평면구조

양산지구 · 첨단 더블 프리미엄!

양산지구 **스카이라이프 유탑유블레스**

계약금 5%로 내집마련 (1,100만원~내집마련)

2억 초반대~ 중소형 아파트~!

중도금 무이자 무제한 전매!

중소형 (구)26형 / (구)30형

회사보유분 특별분양!

계약금 5%로 내집마련 (1,100만원~내집마련)

분양문의 **351-4610** (062)

모델하우스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449-2 농성역 7번 출구구 일렉트릭시티 빌딩

(주)유탑디앤씨 · (주)유탑건설 · (주)유탑